

“너무 재미있어 즐기면서 하고 싶다”

젊음! 그 열정과 꿈 <3>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장은지, 푸른연극마을 김소영·이정교 씨



희곡작가, 연출가, 배우의 꿈을 꾸고 있는 연극인 김소영·이정교·장은지(사진 왼쪽부터)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들에게는 풋풋한 냄새가 났다. 아직 다들 어찌 않았고, 어떤 성과물을 내놓은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 특유의 정열과 유쾌함이 가득했다. 지역연극관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래서 ‘연극’에 올인하는 젊은 배우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젊으니까, 앞만 보고 달려보겠다고, 도전하며 꿈을 이루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무엇보다 “연극이 너무 너무 재미있어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했다.

공동예술극장에서 세명의 젊은 연극인들을 만났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장은지(20)씨와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김소영(22), 이정교(27)씨가 주인공이다. 각자 도전하는 분야가 다양하다. 은지씨는 배우, 소영씨는 희곡작가, 정교씨는 연출가의 꿈을 가슴에 담고 있다.

올해 대학 세네기가 된 은지(동신대 문화기획과 1년)씨는 지난 2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첫 작품은 지난 5월 공연했던 ‘의자는 잘못없었다’였다. 은지씨가 연극과 인연을 맺은 건 신광중 재학시절이다. 동신여고에 입학해서는 연극반 ‘아트’에서 활동했다. 2학년때 ‘소나무와 아래 잠들다’라는 작품으로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지역 연극하는 선배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소영씨도 아직 대학생이다.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에 재학중으로 당초 소설을 전공하려 했지만 1학년 때 파 동아리에서 연극 작업을 하면서 희곡으로 진

로를 바꿨다. 같은 학교 선배인 정교씨는 순천에서 활동하는 극단 ‘거울’에서 기획일을 맡았고 음악 담당, 배우로도 활동한 팔방미인이다. 정교씨는 순천 효산고 동아리에서 연극을 접했다. 대학 때는 ‘남 보러와요’로 배우가 됐고, ‘경숙이 경숙 아버지’, ‘아비’ 등 몇 작품에서는 연출을 맡았다. 순천에서 열리는 영화남연극제 기획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장은지-고교때 연극반 활동 청소년연극제 연기상 수상

김소영·이정교-“일단 판을 즐겨보라” 다른 세상 보기도

두 사람이 푸른연극마을에 입단해 극단 대표 오성완씨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일단 연극을, 판을 즐겨보라”는 거였다. 글을 쓰는 소영씨는 극단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됐다.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극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경험하고 싶기도 했어요. 극단에서 활동하다 보니 사람들의 움직임과 표정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죠. 지금까지 우물만 개구리처럼 내 세계를 혼자만 느꼈었다면 극단에 들어오면서 뭔가 구성을 보게 됐어요.” 은지씨는 ‘의자는 잘못없었다’에 출연하며 생각이 깊어졌다. “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

는 식이었는데 프로 무대에서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도전의식을 자극하기도 해요.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서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구요. 조금씩 역량을 쌓은 뒤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정교씨는 대학교때부터 꼭 무대에 올리고 싶었던 ‘우리 내발을 불었다’라는 작품을 꼭 공연하고 싶다고 했다.

“전 감히 이런 꿈을 꾸요. 제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연극 대사, 표정 하나 하나를 모두 관객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웃음).” 정교씨와 소영씨는 푸른연극마을이 오는 10일부터 무대에 올리는 ‘한여름밤의 꿈’에도 출연한다. “연극관이 어렵다는 건 많이 들었죠. 뭐 힘든 일이 제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젊을 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조금은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도 젊음의 특권이지요.”(정교) 사진가자의 요청에 이런 저런 표정을 지으며 유쾌하게 사진 촬영을 하는 이들이 지역 연극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박물관·미술관협회 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정	시간	내용	대상
■ 은암미술관				
나를 드러내다	8.10	15:00~17:00	관화 찍기	보육원 여성
■ 국유미술관				
프로그램명	일정	시간	내용	대상
만남과 소통을 통한 치유	8.10		워크숍 및 평면 표현(콜라주)	
	8.11	10:00~12:00	평면 표현(콜라주)2	소외계층여성
	8.12-13		입체 표현(설지미술)1·2	
■ 광주교육대학교교육박물관				
프로그램명	일정	시간	내용	대상
	8.4		얼굴척고 쓰기	
	8.5			
	8.8			
	8.11		감정나누기	
	8.12			
	8.18	10:00~12:00	다양한 감정(喜怒哀樂)을 미혼모(11월) 등을 마련하는 등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문화여성
	8.19		다양한 감정(喜怒哀樂)을 미혼모(11월) 등을 마련하는 등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미혼모 장애인학부모
	8.22		대본 만들기(노노드라마)	
	8.23		감정표현하기	
	8.25		리허설	
	8.26			
■ 조선태고교박물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관)				
프로그램명	일정	시간	내용	대상
	8.17		마음속의 풍경	장애여성
	8.19		내 마음의 꽃	이주민 또는 외국인여성
	8.22		내 마음의 물결	장애여성
	8.24		내 마음의 대지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프로그램명	일정	시간	내용	대상
	8.4-11		조명등 만들기 1·2	
	8.18	10:00~12:00	차상 만들기1	이주민 또는 외국인여성
	8.25		차상 만들기2	(결혼이민자)
	9.1		항아리 만들기	

나만의 작품 만들며 소중한 추억 남겨요

광주시립박물관·미술관협회, 소외여성 대상 ‘희망을 향해 함께 가요’ 진행

광주지역 미술관·박물관들이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광주시립박물관·미술관협회(회장 정승규)는 오는 9월1일까지 공동기획행사인 ‘희망을 향해 함께 가요-반딧불이여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북권위원회 북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선태고교박물관, 국유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은암미술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폭력피해여성, 장애여성,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받는 여성을 위해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이다.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외부 전문 강사와 함께 예술 체험을 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며 소중한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우재길미술관은 학예연구사들과 참가자들이 꽃 누르미(압화)를 이용해 소품을 만들어 보는 ‘나를 비취보다’(5일)와 미니액자에 자신만의 희망을 담은 ‘세상의 꽃, 다시 피우다’(12·19일)를 진행한다. 또 광주교대교육박물관에서는 다문화여성 및 미혼모, 장애인학부모를 상대로 ‘얼굴 척고 쓰기’(4·5일) 행사를 열고, 광주시립민속

박물관도 ‘조명등 만들기’(4일)를 진행한다. 이 밖에 국립광주박물관은 ‘우리문화 토포리 도자기’(5·9일)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국유미술관은 ‘관화찍기’(10일), ‘평면표현’(11일) 등을 마련하는 등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념해 오는 9월 7일~18일 조선태고교에서는 특별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에는 국중효·김경주·김진화·노정숙·박선주·박정일·박철우·임남진·장현우·전현숙·정세진·조은경·최규철·한미경·홍성남·홍지운씨 등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능 스트레스 오늘만큼은 ‘홀홀’

광주실버예술협, 수험생·학부모를 위한 콘서트… 오늘 수완지구

수확능력시험(11월 10일)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콘서트가 열린다. (사)광주실버예술협회는 3일 오후 7시 광주 수완지구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한밤의 푸른 희망 콘서트’를 갖

는다. 수능시험을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과 부모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그룹 ‘사랑과 평화’ 등 국내 걸지의 밴드에서 활동했던 드러머 김희연이 이끄는 퓨전

그룹 ‘김희연과 아우름’이 국악 선율과 리듬을 혼합한 흥겨운 음악을 선사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댄스팀들도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다. 출연진은 힙합 퍼포먼스 그룹 빅사이즈와 비보이 그룹 ‘acid breaker’, 파워 댄스그룹 ‘KJN 파워 댄스’다. 그밖에 대금연주자 오목대, 댄스가수 예주와 김은희, 트로트 가수 서명희 등이 성인 가요를 들려주며 조성혁이 트럼펫 솔로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트랜스 포머3 (12세/리오)전제	1관 고지전 (15세)
2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제)	2관 트랜스 포머3 (12세/리오)전제
3관 퀵 (15세)	3관 퀵 (15세)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제)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제)
5관 트랜스 포머3 (12세)	5관 명탐정코난: 침묵의 15분(전제)
6관 마당울나온앙탈 (전제/퀵 (15세))	6관 고지전 (15세)
7관 퍼스트 어벤저 (12세)	7관 마당울나온앙탈 (전제/씨니감독판 (15세))
8관 고지전 (15세)	8관 퀵 (15세)
9관 씨니/씨니감독판 (15세)	9관 바니버디(전제)/퍼스트 어벤저 (12세)
10관 명탐정코난: 침묵의 15분(전제)	10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제/카2 (전제))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색깔있는 영화선책 • wsh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

1관 마당울나온앙탈 (전제) / 퀵 (15세)
2관 트랜스 포머3 (12세)
3관 퍼스트 어벤저 (12세)
4관 트랜스 포머3 (12세)
5관 카2 (12세) / 리오(전제)
6관 씨니 (15세)
7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제)
8관 고지전 (15세)